

# 국악예술의 향연 동리국악 테마공연

고창군, 오늘 고창 동리국악당서 '봄꽃, 동리정사에 물들다' 주제로 진행

고창군은 '봄꽃, 동리정사에 물들다'를 주제로 6일 저녁 7시,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1부 '동리정사 소리길 향연'과 2부 '풍류가객 소리'를 봤다 - 판소리 유파전'으로 2021년 동리국악 테마공연 첫 번째 무대를 마련한다.

1부의 첫 무대를 여는 마당은 농악의 한 부분으로 공음패 오던 복춤을 새롭게 재구성한 '진도복춤'으로 동리정사예술단이 활짝 문을 연다. 신재효 선생이 만든 단가 '도리화기'의 사설 중 중반부에 담긴 심상을 재해석해 판소리로 작곡한 '진채선가'를 비조채선팀이 판소리 증창으로 선보인다.

또 장단 구성뿐 아니라 선율과 가사에 흥겨운 멋이 있어 남도민요 중 가장 널리 불리는 곡으로 춤과 소리로 동백꽃을 따는 처녀들의 수줍고 들뜬 마음과 그로 인해 총각들의 애라는 마음을 담아낸 '동백타령' 등을 동리정사예술단이 무대를 장식한다.

'풍류가객 소리를 봤다' 2부의 무대는 다양한 판소리유파의 창법과 정통성을 계승한 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판소리의 진수를 보여주는 '판소리 유파전'의 향연을 펼친다.

▲용왕이 주옥을 지나치게 즐기다 병을 얻어 도사가 용왕의 병을 진맥하는 부분의 정광수계 수궁가 (소리 정효영, 고수 오홍민) ▲춘향가의 눈대목이라 일컬을 정도로 청중들에게 인기 있는 대목의 김세종제 춘향가 (소리 정수



고창군은 '봄꽃, 동리정사에 물들다'를 주제로 6일 저녁 7시,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1부 '동리정사 소리길 향연'과 2부 '풍류가객 소리를 봤다 - 판소리 유파전'으로 2021년 동리국악 테마공연 첫 번째 무대를 마련한다.

인, 고수 오홍민) ▲박진갑 남치는 자진모리장단의 장중하며 극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소리

대목의 동편제 박영술바디 적벽가 (소리 원진주, 고수 서은기) ▲심청가의 전체 줄거리를 응집한 부분의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의 강산제 심청가 (소리 김소라, 고수 서은기) ▲제비가 물에다 준 박씨를 심어 박이 열려 첫 번째 박을 타는 대목의 동편제 강도근바디 흥보가 (소리 이란초, 고수 서은기) 등을 유파가 다른 명창들이 유파별 매력을 가감 없이 드러내 전통 음악의 흥취를 선사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장기화 되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지만, 국악공연을 통해 우리의 소리를 감상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연으로 동리국악 테마공연을 매년 실시해 관광객 및 국악 애호가와 군민들이 국악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관객 발열체크, 문진표 작성, 개인 손 소독 및 전 관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특별방역 및 주기적 환기, 객석 거리두기 시행 등 철저한 자체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관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관람료는 선착순 무료(거리두기 객석 170석 오픈)이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가얏고 티라노 황금뿔의 비밀' 공연 모습.

## “어린이들 위한 국악나들이 떠나요”

국립민속국악원, 8일·15일 예원당서 '이야기보따리'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8일과 15일 오전 11시에 예원당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국악나들이 '이야기보따리'를 개최한다.

8일에 진행되는 '가얏고 티라노 황금뿔의 비밀'은, 유아들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유아들에게 국악을 친숙하게 다가가게 하고, 유익한 내용의 공연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한 작품이다.

15일에는 아트컴퍼니의 창작뮤지컬 '날을 품은 호랑이'로, 조선 최고 백자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좋은 흙을 구하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간 소녀 달이가 호랑이를 만나게 되면서 시작된다.

목숨을 구하고자 자신을 누이라 속이고 호랑이에게 '반덕'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면서 점점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가게 된다. 보름달이 환하게 뜬 어느 날 누이가 보고 싶어 마을로 내려간 호랑이는 도공들을 잡아가기 위해 조선에서 온 못된 가토 왜장과 마주치게 되는데, 호랑이의 활약이 기대되는 작품이다.

공연은 3세 이상이면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문의는 전화(063-620-2329) 혹은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 대화)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거리두기 지침에 사전예약을 통해 선착순 회당 200명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니 예약은 필수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영화학교 수강생 12~18일까지 모집

(사)전주영상위원회는 '2021 전주영화학교'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난해 1기 수강생을 배출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수강생을 모집하는 전주영화학교는 장편영화 연출을 희망하거나 전문영화인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역의 영화인을 대상으로 영화연출 수업과 장편 극영화 시나리오 기획·개발 멘토링 교육, 연출 분야 외 주제별 특강 등을 진행한다.

5월 수강생 모집을 통해 오는 6월부터 약 4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전주영화학교 지원조건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39세 이하의 전라북도 거주자이거나 최근 2년 내의 지역의 영화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지역 영화인, 전북 소재의 영화·영상 관련 학과 졸업 예정자로, 지난해 단편영화 1편 이상의 영화 연출 경험자로 한정된 지원 조건에서 영화연출자로서의 가능성을 중점으로 보다 완화했다.

전주영화학교는 생생한 현장 교육을 목표로 독립과 상업, 예술영화의 경계에서 우수한 역량을 자랑하는 장편영화를 선정해 해당 영화의 감독을 중심으로 실제 스텝들이 촬영, 편집, 제작 등 각 파트별 교육을 진행한다. '우리들', '우리집'으로 탁월한 연출력을 인정받은

윤기은 감독과 스텝진이 지난해에 이어 2021 전주영화학교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특히 전주영화학교에서는 영화연출 교육 외 장편영화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과정의 기획·개발 멘토링 교육과 연기/특수효과/영화음악 등의 분야별 특강 수업도 진행한다. 올해 참여하는 멘토링 강사는 영화 '해치지 않아', '날 품살벌한 연인' 등을 연출한 손재곤 감독과 '아저씨', '비행:사라진 여자' 등의 제작을 맡은 김성우 PD,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의 연출을 맡은 이종필 감독이 맡았다.

4개월 여의 교육과정 동안 수강생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월 100만원의 교육 지원금 지급 및 시나리오 기획개발 멘토링 교육을 통해 완성한 장편 시나리오 심사를 통해 3인에 각 700만원의 기획개발비를 지원한다.

'2021 전주영상위원회 전주영화학교' 수강생 모집 접수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기획홍보팀 이메일(jicpr@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군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예술아 놀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야외공연장에서 콘서트를 보며, 코로나19로 불안했던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군산시는 푸르른 오월, 가정의 달을 맞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음악을 통해 지치지 않는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전하고자 군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예술아 놀자! 광장콘서트에 오는 8일 오후 2시 사랑이 꽃피는 오월이라는 주제로 열린다고 밝혔다.

공연은 군산시립합창단의 혼성합창 <고향의 봄>을 시작으로 남녀중창 <O Sole Mio(오 나의 태양)>, <뮤지컬: Dream Girls>, <Bravo My Life> 등 K-pop과 뮤지컬, 영화음악 등 환상적인 합창사운드로 구성했다. 또한, 군산시립교향악단의 <도리화기>, <Spring>의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의 연주로 대중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군산예술의 전당 야외 무대에서 진행되며,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손 소독제 등 방역에 철저한 준비를 했으며, 군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예술의전당관리과 관계자는 "가정의 달 5월 맞아 공연을 통해 앞으로도 우리 삶 속 예술로 군산시민을 위한 예술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용 기자

## 국립전주박물관서 한국 역사와 만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상설전시실 외국어 브로슈어 전달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상설전시실 외국어 브로슈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문화 가정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것은 박물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지난 4일 국립전주박물관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박물관을 손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실 브로슈어를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카자흐스탄어 등으로 번역·제작했다.

다문화 가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박물관 관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맞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만나고 가족 화합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박물관 방문이 어렵다면 집에서도 박물관을 만날 수 있다.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다양한 영상을 제공한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상설전시실 외국어 브로슈어와 유튜브 채널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와 전라북도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며 "국립전주박물관이 코로나19로 지친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와 가족에게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낯섬과 두려움을 신속함과 희망으로 바꾸는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립전주박물관 상설전시실 외국어 브로슈어는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제8회 전국 품바 명인전

2021년 5월 14일(금) 오후 6시 30분~

전주 풍남문 광장

- ▶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 ▶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 ▶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 전주매일신문사

\*\*위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